

엘리야 - 번호 13

마흔여섯

Jeff Pippenger

2023-10-19

이전 글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와 대응시켰다.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도록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상징적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사렙다의 과부는 두 개의 막대기, 곧 1844년 10월 22일에 한 나라가 될 두 민족을 모으고 있는 신실한 교회를 대표한다.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이 가 있는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오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본토로 데려가며, 이스라엘의 산 위,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아니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그들의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이 죄를 지어 온 그 모든 거처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 내 법도를 따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살리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의 자녀가 영원히 거주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방백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이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세우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되리라. 에스겔 37:21-28.

에스겔은 하나의 민족이 되는 두 민족, 곧 두 막대기에게 약속된 여러 축복을 지적한다. 우리는 그 축복들 가운데서 화잇 자매가 네 가지 "오심"으로 지칭한 것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며, 그것들은 모두 1844년 10월 22일에 동시에 성취되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 다니엘 7장 13절에 나타난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 나아가신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신 것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혼인에 임하는 신랑의 오심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대쟁투, 426.

화잇 여사가 언급하는 첫 번째 '오심'은 이천삼백 년의 끝에 일어날 '성소 정결'을 위한 대제사장의 오심이다. 그 구절은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 곧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 환상이 얼마 동안이겠으며, 성소와 군대를 다 밟아 짓밟히게 하는 일이 언제까지이겠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14절은 성소의 정결이 이천삼백 년의 끝에 시작될 것임을 밝힌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데려다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며, ... 모아진 백성은 더 이상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1844년 10월 22일, 화잇 자매가 언급한 두 번째 "오심"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성취로서, 인자가 나라를 받기 위해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오실 것임을 밝힌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며;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에스겔은 또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묘사한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 곧 다윗이 그들의 "한 목자"가 되시며, 그의 "종 다윗이" 또한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고 밝힌다. 왕은 본질적으로 왕이라는 칭호가 필요하고, 다스릴 영토와 왕국의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이 없다면 왕국도 없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갔고, 그의 앞으로 가까이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다니엘 7:13, 14.

화이트 자매가 지목한 세 번째 "오심"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성전에 갑자기 오셨을 때였다. 에스겔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또 "더구나"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들이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함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자, 곧 '언약의 사자'는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엘리야였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셨을 때, 그는 '정련하는 불'처럼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셨다.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된 다른 '오심'은 신랑의 오심이었다. 에스겔은 두 차례에 걸쳐, 두 막대기로부터 모아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밝힌다. 이는 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된, 화이트 자매가 언급한 네 가지 예언은 모두 에스겔의 두 막대기에 대한 증언으로 확인된다.

엘리야는 언약의 사자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분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한 사자로 지목하셨다. 화이트 자매는 윌리엄 밀러를 엘리야로 지목했고, 밀러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인자", "언약의 사자"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기 위한 길을 예비했다.

삼 년 반이 지난 후, 엘리야는 과부와 그 아들과 함께 머물렀던 사렘다에서 와서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모으라고 명했다. 에스겔은 두 막대기로부터 모아진 민족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를 두실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질문을 누가 참되신 하나님인지뿐 아니라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의 맥락에서도 제기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백성은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다." 열왕기상 18:21, 22.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사르자, 아합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갈멜 산에 불이 내린 사건은 두 막대기로 이루어진 나라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소를 두신 때를 가리킨다. 갈멜 산에서의 불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거짓 신임을 보여 주었다.

사렘다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과부에게 증명해 주었고, 갈멜산에서의 기적도 같은 일을 이루었다. 갈멜산의 불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보여 주었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에서, 밀러와 밀러파는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되어 참된 선지자들로 증명되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이세벨의 딸들임을 드러냈다.

갈멜의 엘리야는 참된 개신교의 뿌를 식별하는 사역을 대표하는데, 이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개신교의 뿌와 공화주의의 뿌를 가지고 있으며 1798년에 막 그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8년에, 이세벨의 통치 삼 년 반이 끝날 때, 엘리야는 사렘다에서 나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개신교의 뿌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 왔다.

사렘다의 과부는 두아디라의 역사에서, 자신의 과부됨이 제거될 혼인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부활한 아들은 3년 반의 가뭄 동안 이세벨에게 살해된 자들을 대표한다. 그녀가 불을 피우려고 모으던 두 개의 나뭇가지는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모아지게 될 문자적 이스라엘의 두 집을 가리켰고, 그 민족은 영적 이스라엘이었다. 과부는 그 두 나뭇가지를 사용해 불을 지피려 했는데, 그것은 갈멜에서,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에, 언약의 사자가 "정련하는 자의 불"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불은 갈멜산에서와 1844년 10월 22일에 절정에 이른 '한밤중 외침'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1-4.

성령의 부으심은 메시지의 선포를 상징하며, 과부는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고 불을 피우려 했는데, 이는 메시지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 그는 내게 말하였다. "가져다가 다 먹어라. 네 배는 쓰게 되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다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다 먹고 나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0:9, 10.

아합이 곧바로 이세벨에게 전한 메시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인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다. 아합은 막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1844년 10월 22일에 곧 밝혀진 메시지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였다. 어느 경우든, 아합이 전한 메시지든 셋째 천사의 메시지든 이세벨을 격분시킨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큰 분노로 나아가 파괴하고, 많은 자들을 철저히 없애려 할 것이다. 다니엘 11:44.

다니엘의 '동방과 북방으로부터의 소식'은 북방의 왕, 곧 이세벨을 격노하게 하는 기별을 가리키며, 그녀는 지구 역사상 마지막 박해를 시작한다. 그 기별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낸 전갈과 1844년에 심판이 개시될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한 사건으로 표상되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칼로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말하나라.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열왕기상 19:1, 2.

엘리야는 상징으로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광야 기간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1798년에 엘리야는 역사 속에서 윌리엄 밀러로 등장한다. 1844년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한밤중 외침의 불을 내려오게 한다. 그런 다음 1863년에 엘리야와 그의 메시지는 거절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모세의 '일곱 때'에 대한 메시지였으며, 에스겔의 두 막대기의 메시지로도 상징되었다. 흠여짐이 끝날 때 두 막대기를 모으는 것은 사렙타의 과부의 메시지였고,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그 두 막대기를 모았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밀러파 재림주의는 1856년에 라오디게아 재림주의가 되었고, 이후 1863년에 그들이 모세의 '일곱 때'에 관한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1856년에 (하이럼 에드슨의 미완성 기사 여덟 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일곱 때'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할 논리적 능력을 제거해 버렸다. 그들은 논리상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로 하여금 모아 세우게 한 진리의 기초 체계를 허물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밀러가 발견한 첫 '돌'은 라오디게아 재림주의가 그 역사 전체에 걸쳐 걸려 넘어지게 될 기초석이었다. 그 첫 번째 진리의 돌을 거절한 것은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을 낳았는데, 그것은 치유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좀처럼 추구되지 않는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성전의 정결은 다니엘 8:13에서 성소와 함께 짓밟힌 '군대'의 정결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군대'는 사르밧의 과부가 불을 피우려고 주워 모은 '막대기 두 개'로 상징되었다. 그 두 막대기는 문자적 고대 이스라엘의 두 집이었다. 문자적 에브라임과 유다는 한 영적 민족으로 모아지고, 심판의 개시 때 언약의 사자에 의해 정결하게 될 것이었다. 그 두 민족이 바로 짓밟혔던 '군대'였다.

에스겔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 있는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오시고", "그들을 모으시며",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시리라"는 것이었다. 문자적 이스라엘의 땅은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 또는 유다였다. 1798년에 영적인 영광의 땅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땅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던 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미리 살피 둔 젓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의 영광인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 곧 젓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의 영광인 그 땅으로는 그들을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에스겔 20:6, 15.

이스라엘의 두 문자적 집은 '모든 땅들의 영광'이라 불리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다. 이스라엘의 두 문자적 집이 영적 이스라엘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땅에 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영적인 '영광의 땅'은 땅의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 초기의 밀러주의자들의 운동과 마지막의 십사만 사천의 운동이 자리하는 곳이다.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는 운동은 오직 땅의 짐승의 땅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다. 다른 어떤 땅에서 자신들이 셋째 천사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운동은 가짜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자비와 복이 우리 나라 위에 퍼부어졌고, 이 나라는 자유의 땅이요 온 땅의 영광이 되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공경하기는커녕, 미국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교만과 탐욕과 자기만족에 물들어 버렸다. . . .

공의가 거리에 넘어지고 공평이 들어오지 못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먹잇감이 되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주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미합중국의 백성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를 포기하며 교황주의를 지지할 때,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되고 '국가적 배도'가 하늘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 파멸이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5월 2일.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은 성소와 군대가 모두 짓밟히는 것을 지적한다. 그 군대는 문자적 이스라엘의 두 집이었다. 예루살렘은 암흑시대 1,260년 동안 짓밟혔다.

그리고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내게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은 측량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1, 2.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한은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언적으로는 1844년 10월 22일에 있었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다 먹었다. 그것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고,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0:10.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요한은 1844년 10월 22일의 쓰라린 실망을 상징했고, 곧바로 성소와 군대를 모두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니엘서 8장 13절의 질문의 주제는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일이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알려 준다. 그 마흔두 달은 엘리야의 삼 년 반이었다. 그것은 538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암흑시대였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언적으로 서 있는 요한은 뜰을 제외하고 "그것을 재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한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서 8장 13절의 말로 하면 그는 성소와 군대를 측량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요한이 1,260년을 세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는 1798년부터 그가 서 있던 1844년까지를 측량해야 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는 측량해 보면 46년에 해당한다. 그 46년의 시작은 1798년이었는데, 그때 모세의 "일곱 때"가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대하여 성취되었다. 그 46년의 끝은 1844년이었는데, 그때 모세의 "일곱 때"가 이스라엘의 남왕국에 대하여 성취되었다. 요한의 측량은 46년에 해당한다. 46이라는 수는 성전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으나,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은 46년에 걸쳐 세워졌다고 따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9-21.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이기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 타락한 아담의 육체, 곧 그 안에 유전된 모든 타락성을 지닌 육체를 취하셨다. 두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육체에 사천 년의 죄로 인해 유전된 타락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퍼뜨리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그 유전된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톨릭의 주요 교리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며, 이것이 곧 너희가 오리라고 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3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요한이서 1:7.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전은 모든 사람의 몸이라는 성전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견디실 때, 에덴에서 시험을 받던 아담만큼 유리한 처지에 있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낮추시고, 인류가 에덴과 본래의 순결과 정직의 상태에서 떠나 방황한 지 사천 년이 지난 뒤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 죄는 오랜 세월을 걸쳐 인류 위에 끔찍한 흔적을 새겨 왔고, 육체적·정신적·도덕적 쇠퇴와 타락이 온 인류에 만연해 있었다.

에덴동산에서 유혹자의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함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존재의 모든 기관과 능력은 골고루 발달해 있었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 아담이 견디지 못했던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승리하셨는데, 그것은 아담이 자기 거처의 빛을 등진 지 사천 년 뒤였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된 인류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에덴에서 아담이 지녔던 본래의 순결과 지혜와 지식에서 점점 더 멀어져 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하던 그대로의 인류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인류를 대신하여,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지니신 채, 사람이 공격을 받게 되는 모든 면에서 사탄의 시험을 견뎌 내셔야 했다. 선별된 메시지, 제1권, 267, 268.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으며, 그의 몸이라는 성전은 4천 년 동안 누적된 약함으로 퇴화된 인간의 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인간의 성전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모세가 율법과 성전 건립에 관한 지시를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산에 46일 동안 머물렀다. 에스겔은 그리스도께서 두 막대기의 '한가운데'에 자신의 성전을 두시는 것을 언급한다. 요한이 재라고 지시받은 기간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일곱 때가 끝난 때부터 46년이었고, 그것은 1798년과 1844년 사이의 '한가운데' 혹은 그 기간을 나타냈다. 그 46년 동안 예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때 갑자기 정결하게 하실 영적 성전을 세우셨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자신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다. 그 율법은 두 돌판으로 나타난다. 첫째 돌판에는 네 계명이 있고, 둘째 돌판에는 여섯 계명이 있다. 둘을 합하면 숫자 46을 나타낸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영적 이스라엘의 모임은 영적 이스라엘의 모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성전의 건립도 나타낸다.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우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보배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그들은 또한 이 일에 정하여진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4-10.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세워진 성전에는 불순종하도록 "정해진" 한 부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이 "일곱 때", "모퉁잇돌",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곧 "거치는 반석"이자 "걸림돌")을 거부한 데서 드러났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부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을 '살아 있는 돌'로,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귀한' '돌'로 인정하였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택하신 족속'은 '옛적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모으실 때, 그분은 그들을 '이방'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분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두 민족을 하나로 모으실 때,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었다.

기초는 오직 하나이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역사의 기초였으나 불순종한 자들에게 버림받은 '걸림돌'은 모세의 '일곱 때'였다. 1863년에 그 '일곱 때'가 거절되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성소의 정결이 오로지 이천삼백 년 예언의 성취였다고 결론짓는 그 꾸며낸 이야기의 뒤범벅은, 빈 성소, 회중 없는 성소, 시민 없는 왕국을 상정한다. 성소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영감으로 제시된 목적은 없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25:8.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곧 군대)과 연관되어 있다. 두 민족으로 규정된 에스겔의 두 막대기는 한 민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 숨기기 위해 그 질문을 곡해하는 것은, 동시에 그 질문에 답하라고 요청받은 13절의 '어떤 거룩한 이'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라.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던 그 거룩한 이에게 묻되, '항상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이 환상, 곧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일이 언제까지지겠느냐?'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일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13, 14.

그 질문을 받은 하늘의 존재는 "그 어떤 성도"라고 불리며, 그 표현은 히브리어 "팔모니"를 번역한 것으로, "놀라운 계산자", "비밀을 헤아리는 자"라는 뜻이다. 그 본문은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이자 기초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놀라운 계산자로 나타내신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 예언과 이천삼백 주야의 기간 예언 사이의 관계를 바로 거기에서 밝히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가장 긴 기간 예언은 모세의 맹세, 곧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흩어지고 노예가 될 것을 규정하는 예언으로, 그들은 13절에서 밭힐 "군대"로 지칭되고, 반면 14절은 성소가 짓밟히는 예언을 밝힌다. 두 예언은 사렙다 과부가 언약의 사자의 불에 쓸 두 개의 나뭇가지를 모은 뒤,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다.

재림운동이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가 깨닫도록 이끈 예언의 때에 관한 가장 처음의 진리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가렸다. 1856년에 팔모니는 하이람 에드슨의 여덟 편의 글을 통해 일곱 때의 빛을 더욱 밝히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를 향한 기별을 거절하고 라오디게아의 다섯 가지 악한 양상을 받아들였으며, 그리하여 스스로 미련한 다섯 처녀임을 드러냈다.

이사야 7장의 65년은, 그 시작에서 기원전 742년, 723년, 677년을 지목하며, 1798년, 1844년, 1863년의 종결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다. 그 종결의 역사는 에스겔 37장에서 두 막대기가 합해지는 것으로 표현되며, (신약의 그리스어에서 그렇게 불리는) 사렙다의 과부의 역사로도 표현되는데, 이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 유다(영화로운 땅)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세우시는 역사이다. 그 역사는 65년 예언의 끝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시작을 나타낸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시작에서 두 막대기의 결합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종결을 상징한다. 그 역사에는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에 대한 병행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예언적으로 세력, 뿔, 나라, 왕국, 왕, 머리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서로 바뀌 쓸 수 있는 상징들이다. 이 모든 상징은 또한 에스겔이 두 나라로 지칭한 두 막대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예언적 역사 초기에는 개신교의 뿔이 하나의 나라, 곧 하나의 뿔로 결집되었다. 그 동일한 역사의 끝에는 공화주의의 뿔이 배도한 개신교의 뿔과 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의 형상이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자적 이스라엘의 두 집에 대해 집행되었던 일곱 때의 저주의 증언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두 집이 1844년에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시작에서의 그 역사가 어떻게 마지막의 역사를 식별해 주는지, 곧 처음에 개신교의 뿔로 예시되었던 그 결집과 연합의 과정을 공화주의의 뿔이 마지막에 어떻게 반복하는지를 전적으로 알 길이 없게 된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